

#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쟁' 아직 안 끝났다

### CNN "경제 낙관하기는 아직 일러"

### 최근 유가·식품값·임금 급등

### 미·유럽 소비자 물가 꾸준히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일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곧 끝낼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타 추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주의는 잘못됐을 수 있으며, 최근 석유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몇몇 주요국의 임금은 여전히 강하게 상승하는 만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기는 멀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CNN에 따르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둔화하면서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 물가는 3% 올랐다.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인 1년 전의 9.1%에 비교하면 완만한 상승 수준이다.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는 최대 3.3% 상승이 기대된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5.3% 상승해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위 경제 연속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유로존의 완만한 경기 침체는 이미 끝났을 수 있다는 신호도 있다. 그러나 유가나 식품 가격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

최근 수 주간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6월 말 저점 이후 16% 올랐다. 미국 원유 가격의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같은 기간 19% 상승했다.

정보제공업체 에너지 애스펙츠(Energy Aspects)의 공동 설립자인 리처드 브론즈는 CNN에 사우디와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감산, 예상을 뛰어넘는 세계 수요,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에 힘입어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작년과 같은 속도로 또는 동일한 극단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인 1억2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 생산량은 1억150만 배럴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식량 가격도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곡물협정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탈퇴하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지난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7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석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며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올랐다.

소비자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 유로존의 경우 7월(잠정치)에 10.8%를 기록했다.

이밖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임금 상승 요소는 미국과 영국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미국 급여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은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해 인플레이션율을 앞질렀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지난 7일 금리 인상 지속을 지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꼽기도 했다.

고용시장에서 구인이 여전히 가용 근로자 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의 전 이사이자 현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인 랜들 크로스너는 "어떤 중앙은행이든(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리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



美 상점에 표기된 복권 당첨금 2조원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상점에 로또 복권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표기됐다. 지난 4월 18일 이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메가 밀리언스의 이번 당첨 상금은 역대 최고 금액인 15억5000만 달러(약 2조274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 폭우로 33명 사망·18명 실종

### 태풍 영향... 이재민 129만명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에 쏟아진 폭우로 33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베이징 서부와 남부 지역에 쏟아진 극심한 폭우로 3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대부분 홍수와 주택 붕괴가 원인이었고, 주민 구조 과정에서 5명이 숨지기도 했다.

실종자는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시 당국은 "임무 수행 중 숨진 동지들과 비극적으로 숨진 동지들에게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폭우로 12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0만6천 채가 무너지거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인터우커우구, 창핑구, 팡산구 등에는 지난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태풍 독수리로 인해 폭우가 쏟아졌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나흘 동안 베이징 지역에 내린 비가 140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창핑구에서는 총 744.8mm의 폭우가 내렸다.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차량 수십 대가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평타이구의 교량 가운데 부분이 붕괴해 다리 양쪽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과 영상도 있었다.

또 다른 영상은 흙탕물이 어른 허리까지 차오르는 등 흡사 재난영화를 방불케 했다. /연합뉴스

## 이라크 동성애 표현 금지... "성적 이탈로 쓰라"

### 언론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금지령

이라크 당국이 언론 매체 등에 '동성애'라는 표현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통신 및 미디어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라크 내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애' (homosexuality)라는 표현은 금지되고 대신 '성적 이탈' (sexual deviance)이라고 써야 한다. '성별' (gender)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이동통신, 인터넷 업체에도 적용돼 모바일 앱에서도 이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같은 규제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라크에서 최근 두달 사이에 성(性) 소수자(LGBT)를 겨냥한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스웨덴, 덴마크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 소각 시위가 잇따르자 이라크에서는 이에 반발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시위가 시아파 성직자들의 주도로 속출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 사회를 억압할 목적으로 느슨하나마 처벌 조항을 정해놓기는 했다.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정한 국가는 60여 곳이며,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 곳이다. /연합뉴스



브라질서 열리는 아마존 협력조약기구 정상회의 8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아마존 협력조약기구(ACTO)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ACTO 회원국 정상과 대표들은 아마존의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과 불법 삼림 벌채 중식,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조직범죄 척결 등을 위한 로드맵에 연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연일 "한일 화해" 언급

### 한일관계 개선 치적으로 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한다"며 "그들(한일)은 화해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메인주(州) 프리포트에서 열린 대선 관련 모금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들(한국과 일본)은 2차 대전으로부터 화해했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로 연결된 한일 화해를 잇달아 거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란히 동북아의 중요한 미국 동맹국이면서 서

로 역사적 양금이 있는 한일 간의 최근 관계 개선에 자신의 지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캘리포니아주(州) 방문 중 로스카토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등과 관련한 외교 성과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 동맹국을 화해시키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